

장애학생안전교육(응급처치)

11월 4일 월요일 1교시에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먼저 응급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하임리히구조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해 학습하였다. 동영상과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한명씩 나와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심폐소생술에서 학생들은 팔꿈치를 정확하게 펴고 시행하는 방법을 가장 어려워하였다. 하임리히구조법에서는 정확히 배의 어느 위치를 밀어 올려 주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학생들에게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고 자신의 몸으로 실습을 진행하니 쉽게 따라하였다.



통합지원반에서는 오늘 실습한 내용들이 실제상황에서도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소홀119안전센터와 함께하는 합동소방훈련

지난 12일(화) 소홀119안전센터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오전 9시 50분에 사이렌이 울리고, 교내에 있는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운동장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였다. 최초 발견자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학교 자체 소방대가 출동하여 초기 진화를 실시하였다. 담임 선생님은 학급별 인원 확인을 하고 환자를 파악하였고 보건선생님은 구급함과 들것을 준비하여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였다. 신고한 지 5분 만에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하였다. 끝으로 화재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소화기를 실제로 사용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화재가 났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우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친구초청시간 운영

통합지원반 학생들은 11월 7일 1교시에 각반의 통합반 친구들을 한 자리에 초대하여 친구초청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 친구초청시간에는 학생들이 연극을 함께 연습해 보고 대사를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꿈속에서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전통연극 속의 주인공이 되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연극연습에 앞서 서로에게 감사한 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서로에게 감사했던 마음을 '그동안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어서

고마웠고 오늘 연극수업에 초대해 주어서 고맙다.'며 정겨운 이야기로 나누었다.



올 12월 말에는 연습한 연극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6학년 수학여행

지난 11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박2일 동안 6학년 학생들이 서울 일대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국회의사당과 롯데월드, 청와대를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국회의사당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대회의장을 직접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였고 롯데월드에서 친구들과 놀이기구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숙소는 서울유스호텔로 친구들과 같은 방을 쓰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교구관계를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둘째 날은 청와대 관람을 갔지만 아쉽게도 관람 도중 비가 많이 내려 점심식사 후 오후 일정이었던 서대문형무소 관람을 취소하고 학교로 돌아왔다. 1, 2학기 사회과에서 배운 내용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키움·마음울림·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송우초등학교